마음 평화 이루는 부처님 가르침

화합 기도하며 자비 등불 세계로

신뇨엔(眞如苑) 교무장
니시가와 세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우주법계에 가득한 자비광명을 찬탄합니다. 지금 인류와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파괴, 질병, 전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찬 모든 고통을 없애겠다"라고 서원하신 부처님의 자비는 보편하여 널리 베풀어질 것입니다.
신뇨엔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에 대승 불자로서 마음의 탄생과 이타(利他)실천을 맹세합니다.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현유(顯幽) 모든 생명의 지복(至福)을 위해 이타행으로 자비의 등불을 크게 크게 넓혀갑시다.

함께 행복한 사회 만들자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장 월인 스님
(사)대한불교 승가종 종정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모든 중생이 깨달으면 곧 부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바라는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오신 부처님.
부처님이 오신 이유를 다시 살피고 물질에 집착하는 욕망을 털어 냅시다.
불생불멸 삼세인과법을 바로 알아 부처님이 오신 뜻을 다시 새겨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무명에서 벗어납시다. 황폐하고 삭막해진 우리 사회를 구하고 가꾸는 데 앞장섭시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갑시다.

바로 당신이 존귀한 부처님

세계불교교황청장 능인 스님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종정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 오셔서 쌍림에서 열반하시기까지 여덟까지의 모습을 보이심은 나와 같이 수행하면 일체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하늘 위나 아래 나 홀로 높다고 선언함은 모든 중생 개개인이 누구나 높다는 것으로 중생의 평등과 자유를 선언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당신께서 부처로 탄생하시는 날입니다. 당신은 내가 사랑하고 존귀하신 부처님이십니다. 이제 당신과 나는 둘이 아닙니다.

중생제도의 지팡이가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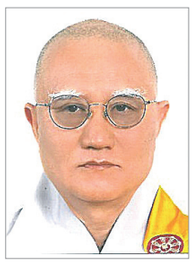
세계불교법왕청 대승정 목탁 스님



수천 마디 말보다 단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미사여구로 말만 하지 말고 스스로 앞장서는 수행하는 수좌가 되고자 발원합니다. 승려의 옷에 취해 살지 말고 중생교화 인간 방생에 땀 흘리는 수행자가 됩시다. 모두 합심하고 하나가 되어 중생을 구원하는 지팡이가 됩시다.
佛门弟子离不开佛祖的手掌 比起千言万语，重要的是实践一次 希望不要只用一句空话，成为带头人 不要沉醉在僧侣地衣服里 要成为众生教化人放生汗水地修行者 大家齐心协力成为一体 确信这样的过程就能从佛教徒的苦难中拯救出来 佛到天涯海角的大志 现在我们给大家展示一下越来越像佛祖的行吧 让我们展示流着汗努力的样子吧

평등의 불법, 만방에 전하자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부처님께서는 무명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탄생게를 통해 모든 사람이 소속, 신분, 계급, 인종, 재산, 학벌, 능력 등과 관계없이 똑같이 평등하게 존귀한 존재임을 이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뜻을 잘 이해하고 받들어서 이 세상에서 탐욕으로 인한 전쟁, 살상, 억압, 착취, 차별 등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혜 광명 나투는 불국토 이루세

(사)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부처님오신날 오늘은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싱그러운 바람은 선선하고 부드럽습니다. 천지 만물이 모두 자연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니 모든 것이 즐거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두두물물에 불성이 깃들어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이 온 우주에 불성이 가득하니 날마다 좋은 날이요, 날마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부처임을 스스로 깨달으면 행복의 경지가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 지혜 광명과 자비 광명이 만방에 펼쳐지는 불국정토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평화 실천에 앞장서자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서로를 존중하도록 합시다. 세상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대화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세상이 바로 부처님께서 그리신 세상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불자들의 봉축하는 마음이 나아갈 곳입니다. 진정한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삼론종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비폭력과 평화를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출발인 자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마음을 모아갑시다.

마음의 평화 찾는 계기 되길

(사)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스님



삼보 전에 큰절을 올립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가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인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안한 일상을 이겨온 국민이 부처님 자비 원력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바라는 염원일 것입니다.
개개인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면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세상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 치유와 안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 궁극적 평화인 부처님 세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평화와 안정 행복의 가득한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스스로 행복한 법 구하자

현대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스님



부처님께서는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 이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시고 가신 그 의미는 바로 모든 것은 나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스스로에 의지하고 스스로를 성찰하여 변화시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서 허물이 없게 하고, 스스로 자신을 훈계하고 제어하여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여 스스로 맑아지면 이 세상은 더불어 맑아져 행복해진다는 솟아오르는 샘물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합시다. 부처님오신날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도록 계속하여 정진해 나갑시다.

생활 속 정진 계기 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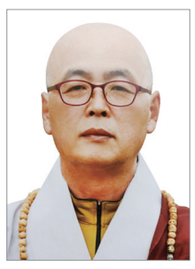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스님



부처님은 무명의 중생을 가엽게 여겨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가여운 중생들 곁에 언제나 어디에나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몸을 나투신 것입니다.
타인에게 널리 베풀고 인격적으로 살며 어떠한 고뇌도 견디어 내고 참삶을 더해 가는 정진(精進)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그리고 생각의 실천으로 저마다의 등불을 밝힙시다. 아직 세상에는 수많은 무명이 남아 있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건지는 부처님의 그 마음을 바로 보고 계속 정진합시다.

희망의 등불 밝히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대봉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현대 문명의 갖가지 병폐를 극복하고, 모두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남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화합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치관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수 봉행하며 새롭게 거듭나 삿된 견해를 물리치고 정견의 수행과 정진으로써 몸소 자비행을 실천하여 이웃에게 희망과 전법의 등불을 전하는 진정한 불제자가 됩시다. 삶의 현장에서 극락정토가 실현되기를 등불을 밝히며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 법 바로 세우자

천토불국종 총무원장 지성 스님



마음이 일면 만물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만물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마음 하나 제대로 다잡는 것이 바로 불국정토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으니, 이것이 부처님오신날의 가르침입니다. 삼계의 모든 고통을 없애고자 하신 부처님은 바로 마음공부의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마음속 자비의 등불을 밝히어 관불하여 신구의 삼업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면 저절로 복과 지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일이 다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 자비 광명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부처를 보라

(사)대한불교 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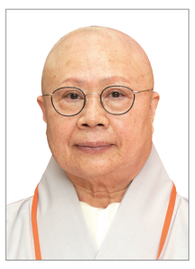


雲山見靑山 春來草自靑
身心把定元無動 默坐茅庵絶往來
寂寂廖廖無一事 但看心佛自歸依

구름이 흩어지니 산이 나타나고 봄이 오니 스스로 새싹이 돋네.
몸과 마음 정(定)에 들어 움직이지 말고 토굴 속에 묵묵히 앉아 왕래 끊어라.
잠잠하고 고요하여 한 가지 일도 없으니 마음의 부처 보아 자신에게 의지하리.

마음 등불 밝은 빛 나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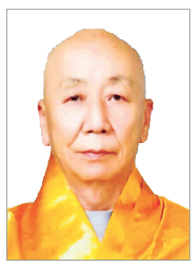
일붕문도중앙회
수석부회장 도심 스님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며 우리도 부처님같이 마음 밝혀 광명으로 거듭납시다. 탐진치의 무명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기꺼이 밝은 빛으로 오신 우리 부처님.
우리도 부처님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인연 지중하신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어리석어 성불할 줄 모르고 있으므로 깨달음의 모습으로 일대사인연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 큰 뜻을 알고 우리 모두 등불 밝혀 마음껏 봉축하고 소리 높여 찬탄합시다.

대중 참여 기치 높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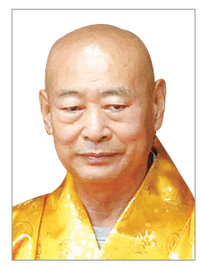
한국불교통합조계종
종정 혜각 스님



우리 사회는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와 극심한 개인주의 풍조의 만연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불자들은 서로 화합하고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불자들이 앞장서서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무명의 어둠을 떨쳐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해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보다 대중 공사를 통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행복한 삶을 이뤄가기를 진심으로 서원합니다.

소통과 화합, 불국정토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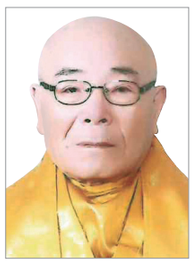
대한불교관법조계종
종정 명암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길 위에서 나고 길 위에서 법을 전하시고, 길 위에서 열반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길에서 맨발로 법을 전한 까닭은 그것이 바로 대중의 삶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부처님 연기법의 선근으로 이끌고 악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배려와 나눔, 관심과 자비로 더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읍시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바로 불국정토를 이루는 길입니다.

나 자신을 바로 봅시다

(사)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정 법두 수암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요, 인천의 스승이며 사생육도의 어버이이신 부처님께서는 중생 제도하고자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갖춰져 있습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습니다. 자기는 영원하므로 종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며 두려워하여 헤매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길이길이 축복합시다.

행복 전하는 수행자 됩시다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
총무원장 성보 스님



부처님오신날, 우리는 부처님 삶과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중생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합하는 곳에서 비로소 법이 나툰다고 하셨습니다. 화목한 가정, 안정된 사회,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찾아 정진하는 수행납자들은 이러한 행복한 삶을 중생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구촌 소외이웃 위해 마음을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스님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을 위한 불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오신날 잠시나마 이들을 위해 마음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가득 차 있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과 나눔의 등불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불법 도리를 깨닫는 자리로

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스님
(사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미혹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나투셨습니다. 해마다 사찰에 연등을 달고 소원을 올리지만, 각자의 소원을 빌기보다는 마음의 연등을 달아야 합니다. 뭇 중생을 위해 나투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오늘 하루만 기리는 행사가 아니고 영원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하겠습니다.